**일본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F2F 미션**

|  |
| --- |
| **<목차>**  **좋은나무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  **[일본 선교의 3가지 키워드]**  **일본 선교 키워드 1. 자유**  - 미국의 근본 정신은 ‘Freedom’  - 일본의 ‘和’ 문화와 일본인들이 가진 두려움  **일본 선교 키워드 2. 중첩**  - 육신이 아닌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 매우 현세주의적이면서도 매우 영적인 사고를 가진 일본인  **일본 선교 키워드 3. 커뮤니티 덴도**  - 일본인들의 커뮤니티 정서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카츠 활동’  - ‘키즈캠프’를 통한 커뮤니티 덴도  **[새언약의 백성됨과 영어의 관계]**  - 핵심은 ‘Teaching’이 아닌 ‘Play’  - 아이에게는 즐거움, 엄마에게는 유익함  -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육으로 지으신 이유  - 에덴동산에서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  - Do vs. Done  - 욥기를 통해 보는 새언약의 백성됨  - 영어라는 툴을 통해 누리는 새언약의 백성됨  **[키즈캠프 & F2F 미션]**  - 키즈캠프, 영어를 통해 자유를 배우다   - F2F(Family to Family) Mission  - F2F Missionary가 해야 할 일  - 키즈캠프와 F2F 미션을 통해 누리는 은혜 |

**좋은나무교회에서 일본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

좋은나무교회는 성도가 500여 명이 채 안되는 교회이지만 이 중에 다음세대가 200명 정도 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12년 전, 하나님께서 이강우 담임목사를 통해 일본 선교에 대한 감동을 주셨고, 특별히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부터 연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개신교는 150여 년 전부터, 카톨릭은 500년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전파를 시도한 선교지였으나 일본 목회자조차 ‘일본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나무교회와 이강우 목사가 십여 년에 걸쳐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를 연구한 결과, 일본이야말로 복음의 유비상황이(Analogy)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보는 교회됨(Churchship)과 상하 관계가 분명한 제자도(Discipleship)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일본 선교의 3가지 키워드]**

일본 선교의 핵심 키워드 3가지는 ‘자유’, ‘중첩’ 그리고 ‘커뮤니티 전도’입니다. 일본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 자유를 통해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한 중첩, 하나님나라와 교회의 중첩, 일본인들의 지극히 영적이면서 지극히 현세적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중첩이란 위대하고 놀라운 복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지는 키즈캠프의 공동 사역으로, 더 나아가 가정과 가정을 잇는 F2F 미션으로 커뮤니티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 키워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선교 키워드 1. 자유**

혹시 일본 동경역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쁜 발걸음, 무표정한 얼굴, 현실의 삶에 매여 지쳐있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너털웃음을 짓는 건 거의 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을 의식하여 폐를 끼치면안된다는 정서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의식구조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유를 실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절대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해가 안 되는 일들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전제부터 시작하지만 일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전제로 시작됩니다. 이렇듯 자유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왜 일본 선교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3~44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에게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1억 2천7백만명의 일본인 중에서 하루에 4~5천 명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들 대부분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이강우 좋은나무교회 목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일본이야말로 하나님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캄보디아 선교집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우연히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영화 장면 속에서 ‘Sun rise, sun set~’이라는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해는 뜨고 지는데 이곳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캄보디아의 백성성들을 어떠한 방법도 없이 쳐다만 봐야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아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강우 목사는 너무 놀랐고 비행기 안에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일본을 향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부터 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근본 정신은 ‘Freedom’**

일본 선교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 출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미 수정헌법 제1조”*

그 시작은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즉 현재의 보스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청교도(The Puritans)들의 자유에 대한 정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자유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근본 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데,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센터 앞에 세워진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자유를 중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참전기념비에는 죽은 전사들의 이름만 빼곡히 써져있는 것에 반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는 전사자들의 이름과 함께 실제 전투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동상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6∙25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는 장진호 전투입니다. 혹한의 추위로 대부분의 사상자가 동상환자였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이 중공군에 포위되면서 공중보급서에 ‘투시롤’이라는 초콜릿 사탕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폭탄을 퍼부어달라’는 미국 공군의 은어였는데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미국 후방 지원대는 그것을 진짜 초콜릿 사탕으로 알아들었고, 그 지역에 폭탄 대신 초콜릿 사탕이 쏟아져내렸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강우 목사가 미국의 멘도타에서 목회를 하던 김호근 목사를 통해 할아버지 성도 한 분이 미 해군 장교로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투 시절 워낙 혹한의 추위를 경험했던 터라 그 경험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여름철에도 두꺼운 겨울철 옷을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 이강우 목사는 갖고 있던 모든 비용을 보내 김호근 목사를 통해 그 성도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자유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인들에게 있어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입니까. 왜 청교도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보스턴 플리머스 항구까지 왔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종교의 자유를 적시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삶에서 자유를 중시했던 것일까요.

그 근간을 찾아보면 프랑스의 위그로노부터 시작됩니다. 프랑스 위그노는 프랑스 개신교 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16세기 프랑스 위그노들은 신교와 구교의 대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한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준 낭트칙령이 있었으나 앙리 4세의 손자인 루이 14세는 즉위 후 갑자기 낭트칙령을 폐지했고, 성바돌로메 축일에 로마의 예수회와 도미니칸 성직자회에 의한 신교 위그노 교도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이 앞으로 모두 화해하고 잘 지내자고 했지만 그들의 계략이었을 뿐이었고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위그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아니하지만, 악인들은 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마치 북왕국에서 강국으로 세력을 얻은 예후가 레갑 자손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너희들을 대신 죽이겠다고 해서 죽인 사건을 그대로 써먹은 것입니다.

목자없는 양들은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위그노교도들은 종교박해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는데,주요 지역이 신교의 창시자인 칼뱅파의 주요 거점지역인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대부분 시계공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계공이 스위스로 망명하면서 스위스가 시계 기술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위그노들이 신앙 생활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적인 권위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푸줏간을 운영하는 직업이 무시를 받았지만 천시받는 푸줏간을 운영하더라도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하는 마음으로 온맘과 정성을 다해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했던 위그노들은 실제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자본이 쌓였고 그 자본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일종의 대부업 같은 은행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태동으로,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자유가 결국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들의 근본 정신에는 자유의 기초가 깔려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 시대에 여러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여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유라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和’ 문화와 일본인들이 가진 두려움**

일본은 섬나라라는 폐쇄적인 지형적 특성 때문에 섬 안에서 오손도손 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스카 시대, 유력 호족의 세습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강화를 시도함으로써 일본 고대사의 기틀을 확립한 일본의 성덕태자(쇼토쿠 태자∙574~622년)는 ‘17조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헌법 제1조에서 ‘와(화:和)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화해를 깨는 일은 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야 한다는 정신으로, 오늘날 일본 문화의 근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성덕태자가 ‘와’를 존중하라고 강조한 이후부터 일본 문화의 가장 근본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풍, 와규처럼 ‘와’를 붙이면 일본 문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일본 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문화란 독자적인 인식과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개성을 발하는 것인데 ‘와’로 인해 일본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아이돌인 ‘BTS’는 전 세계에 컬처쇼크를 제공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입니다. 좋은나무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현재 스위스 대사로 가신 분의 말에 의하면, 독일 만하임이라는 도시에서 K-pop 공연이 있어 당시 독일 총영사로 축사를 하러 갔을 때 관중들의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위 유명한 그룹이 아니었는데도 그저 한국어만 들려도 독일 청년들이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를 통해 엄청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컬처쇼크로, 예를 들어 BTS는 세계에 컬처쇼크를 제공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끔 한국 뉴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이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30km만 가면 북한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인지 진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평소대로 잘 삽니다. 두려움이 덜한 것이죠. 미국에서 총격적이 일어나면 머리를 살짝 내밀고 구경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두려움이 덜 합니다. 반면 일본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그들이 말을 안할 뿐이지 잠재적인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 두려움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많이 희박해졌다고는 합니다.

예전에 일본의 박금석 선교사님이 교회당을 정하고 인사차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부침개를 부쳐서 갖다드리려고 찾아갔는데 그 분이 절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손이 마치 수전증 걸린 것처럼 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머릿 속에 박혀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일본인들은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늘 쓰나미, 화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의 저서 <국화와 칼>에 일본인들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잘 나타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개화기 시절에 마취제 없이 수술을 받은 사무라이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라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명을 지르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바로 앞에서 시퍼런 칼을 들고 서있었고 아들은 통증을 참다가 결국 혼절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절 이래로, 오호담당제(五戶擔當制)라는 5가정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발견되면 5가정 모두 죽이는 제도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일본에 두려움이 기저에 깔렸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평민을 죽이는 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차 잘못하면 파리목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경험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공동체 문화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차 실수하면 이지메를 당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십니까? 일본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역시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두려움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엄마들이 왕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방과 후 활동(부카츠 활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서의 방과 후 활동을 굉장히 구속력이 강한 편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거의 강제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이지메에 대한 간극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엄마에게 중독에 빠진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엄마가 “주여, 이 아이에게서 중독 성향을 모두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 아이는 당장 무기력증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중독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극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몰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종의 의욕이 굉장히 극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성을 없애달라고 하면 의욕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살아갈 의욕도 없고 직장에 가서 일할 의욕까지 없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위그노들이 헤게모니를 잡게 된 것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욕이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성욕을 모두 지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의욕 자체가 없어져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의욕’이라는 꼭지 밑에 식욕, 성취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있는데 꼭지 자체를 없애면 나머지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보건데 두려움은 일본 사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퍼져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따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모두 다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빛이라는 꼭지 안에 들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일본인들이 잭키즈캠프에 와서 3박 4일 동안 서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낸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한 지교회에서 키즈캠프를 통해 늘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본선교 키워드 2. 중첩**

일본의 의식구조는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네와 다테마에(本音と建前)로 지칭되는데 혼네(本音)는 본심, 즉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말이고 다테마에(建前)는 본심과 달리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표정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도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지만 하나인 것이 중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일본인들은 그대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라는 말로 요약되는데, 이것을 ‘피동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살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새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믿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일본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일을 묶어서 중첩이 되어서 일본이 개개인, 가정, 회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실제로 일본인과 미국인이 가진 직장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번 공동체로 묶이면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가두어진 이 일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모두 묶여서 컴바인되어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중첩입니다. 레이어로 계층을 이루는 것이 아닌 완전하게 combined(컴바인;결합) 되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닌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욥기 32장 8절에 의하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육신이 아닌 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얘기한 것은 정죄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이 생겼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난 죄를 진 적이 없어. 난 의롭게 살았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자기들이 듣고 깨닫고 말한 내용은 영을 통해 듣고 깨달은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듣고 깨달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욥기 32장에서 등장한 엘리후는 “율법을 통하여 듣고 깨달은 이 내용을, 그저 너희들이 열심히 삶을 산 결과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 못났다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너희는 참 어리석다”라며 변증을 시작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욥기 32장 9절)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소위 철학이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경험주의적 사고와 인간의 선천적인 이성적 능력을 통해 깨닫는 합리주의 사고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대륙의 합리주의와 영국의 경험주의가 바로 철학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두 사조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해부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철학적 사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아버지께서는 영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서 오가는 일들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우리집 주변에 과부나 고아가 없다. 다 섬겼기 때문에 걸식하는 자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아버지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관점을 설명하나 그것은 그저 육신의 관점,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관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매우 현세주의적이면서도 매우 영적인 사고를 가진 일본인**

일본 선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맥락을 이루는 것이 ‘중첩’입니다. 일본인들은 극히 현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단의 사고를 하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유일한 일본인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교방식대로 현세적인 방법으로만 전도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글 가르치기, 김치만들기 같은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고후사랑의교회에서 교회됨의 40일 말씀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내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모든 헤게모니가 고후에 주어진다는 것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은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약 1500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사적으로 봐도 일본 선교는 한국 교회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 실제 내 마음 속에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새겨진 것이 새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은 0.38%(개신교 4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길거리에 예배당이 많지만 대부분 결혼식장으로만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신토에서 태어나서 예배당에서 결혼하고 불교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영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양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 가지 사고를 하나로 인식하는 중첩성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루스 베네딕트 교수는 명저 <국화와 칼>에서 중첩성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호전적이며 평화적이고, 불손하지만 동시에 공손하며, 완고하면서도 유연한 사고방식이 있고, 친절하지만 한없이 잔인하고, 성실하면서 불성실하고, 용감하면서도 비겁하고,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며, 나의 행동에 대하여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크게 민감하지만, 동시에 타인이 나의 잘못된 행동을 모르는 경우 아주 쉽게 범죄하게 된다.‘ - <국화와 칼> 中*

일본인의 중첩성은 사회(커뮤니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매우 두꺼운 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그들이 갖는 진정한 자유는 이렇게 두꺼운 벽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러나 한쪽 면에서의 해방은 다른 쪽에서의 매임을 뜻합니다. 커뮤니티 전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인의 속담 중에 ’길이가 긴 쪽에 감겨라‘(長いものに巻かれろ)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역하면, ’힘이 센 쪽이 어디인지 살피다가 그쪽에 붙어라‘는 말입니다.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성격의 교회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익하고 강한 면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분명하고, 현실적인 면에서는 매우 유익해야 합니다.

**[Episode] 故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전한 성령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생이 달라진 간호사 이야기**

故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께서 언젠가 탈수증으로 병원에 10일 간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퇴원 후 리하비리(재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왔을 때 갑자기 성령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간호사가 남편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간호사에게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는데 전해드려도 괜찮습니까?”고 물었습니다. 그때 또 성령하나님께서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하라’는 강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あなたは離婚をするすんぜんです)”.

이 말을 들은 간호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목사님이 초능력자(超人的な人)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결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병원에 방문했다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과 따님이 그 간호사에게 "기도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고, 두 분이 함께 기도해드리자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후 이혼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녀가 바뀌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오야마 레이지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직접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령하나님의 능력입니다.(全く聖霊様のみわざだ)” 그 간호사 자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현재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선교 키워드 3. 커뮤니티 덴도**

**일본인들의 커뮤니티 정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인들의 커뮤니티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와’를 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커뮤니티로 중첩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빠져 나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목숨을 걸고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지금 바로 일본 교회에 계신 분들입니다.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를 연구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당시 MIT로 유학을 가게 된 일본 청년이었는데 이 분이 회사에 입사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소개한 이후,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3년 동안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일도 자기들끼리만 하면서 그 분을 왕따시킨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아무리 한 지역에서 우동을 맛있게 잘 만들어서 유명해져도 다른 동네에 가게를 오픈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와를 깨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동네까지 가서 가게를 차리면 이지메를 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야마나시현에 중화요리 음식점을 차려 수십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야마나시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십년째 장사룰 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사와서 이틀만 지나도 이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많이 다릅니다.

또 그곳에서 손주까지 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제 드디어 야마나시현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주민들이 안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혼네(本音, ほんね), 즉 개인의 본심으로는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커뮤니티 정서는 이렇게 강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공동체가 너무 똘똘 뭉쳐져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커뮤니티 전도(コミュニティ伝道)입니다. 한국어로는 지역사회 전도입니다.

일본인의 정서에서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고, 완고하면서도 유연한 사고방식이 있고'라고 요약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통째로 바꾼 세계사에 거의 유래가 없는 대사건입니다. 보수적이며 완고한 일본이 어떻게 이러한 격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본인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완고한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유연하고 진보적일 수가 있으므로 일본에는 종교적인 어떤 분명한 동기가 주어지면, 일본인의 기질상 거대한 부흥이 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카츠 활동’**

특히 부카츠(部活: 일본의 학교 동아리, 클럽활동) 활동이야말로 일본선교를 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부카츠 활동이 시작되고 모임이나 시합이 대부분 주일에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올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신앙의 세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기묘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부카츠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대개 일본의 평신도들은 “부카츠 갔습니다”하면 예배를 안나오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문제는 목회자들도 그 일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아이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켰어야 했는데 동조한 것입니다.

일본인 목회자들 역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면도 있고 메이와꾸의 문제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메이와꾸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일본의 문화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되면 안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공동체의 분위기를 따르는 ‘와’가 일본인들에게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토요일마다 키즈캠프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를 갖습니다. 이미 고후사랑의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키즈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은혜와 감사가 참으로 큽니다. 때가 되면 토요일로 일정을 옮겨 토요일날 부모와 아이가 교회에 와서 같이 놀게 해야 합니다.

**‘키즈캠프’를 통한 커뮤니티 덴도**

일본의 부카츠 활동으로 신앙의 대가 끊겼지만 키즈캠프 사역이 부카츠 활동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교회에서 키즈캠프에 이어 주말캠프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이들을 산으로, 들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종의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커뮤니티 덴도가 됩니다. 만일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커뮤니티 덴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본인이 따져서 생각해볼 때 ‘나는 지금 이쪽 커뮤니티에 있는데 저쪽 커뮤니티에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동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쉽게 기존 커뮤니키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캐즘 이론과(Chasm theory) 같이 얼리어댑터 같은 한 사람이, 만일 자녀의 문제로 고생하다 키즈캠프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아이가 잘 성장하고 영어까지 잘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퍼뜨리게 될 겁니다. ‘여기 오니 아이가 잘 크더라', '영어에 능통해지더라', ‘교회에서 나눠주는 부침개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덴도의 핵심입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서두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빨리빨리’ 정신이 농후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발 부탁인데 서두르지 말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올해 몇 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지가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건 빨리 가는 겁니다. 헌신자 한 명만 나오면 다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양육하려고 하는데 신학교는 천천히 보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키워서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최소한 200~300명 되어질 때까지 이들은 내부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교에 보내야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목회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설명처럼 일본인들에게는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지메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지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카츠에 참석한다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다보니 신앙의 세대가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나무교회에서는 일본선교와 함께 ‘다음 세대 잇기, Next Generation’을 위한 중심 사역으로 키즈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언약의 백성됨과 영어의 관계]**

**핵심은 ‘Teaching’이 아닌 ‘Play’**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이 노래 가사를 외워야지’하고 결심한 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잘 외워집니다. 이를테면 성경말씀 순서를 외울 때도 앞자를 따서 단어로 외우는 것보다 멜로디를 붙여 노래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로 부르면 잘 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좇아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래할 때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 기억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지 않고 노래 가사를 억지로 외워야 한다면 굉장히 힘들 숙제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도 ‘내가 영어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 효과가 적습니다. ‘1’ 정도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10’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안됩니다.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이 오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강제로 끌고 와야 할까요? 스스로 오게 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과 끌려오는 사람의 차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하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선진국으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 주고 옷 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즐거움, 엄마에게는 유익함**

과연 어떻게 일본인들이 스스로 오도록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엄마와 아이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와 아이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가르치지 않아야 할까요?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니 힘든 겁니다. 영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지내다 보니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놀러 와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니 그 커뮤니티를 통한 유익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언약의 백성됨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육으로 지으신 이유**

어떤 일이든지 논리적인 서술과 함께 결과를 얘기하면 납득도 쉽고 간결하게 요약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새언약의 백성됨이나 생명과 같은 내용은 간단한 논리적 서술로 정리하기 쉽지 않고 그렇게 논리적 서술로 전달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라는 것은 욥기 3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숨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즉,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 안에 생명력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물리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으로, 성령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 안에 뭔가 힘이 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 일을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다음의 2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충만하셨다, 두 번째는 그 사람 안에 성령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뭔가 통로를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체 중에서 혼을 우리에게 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분류로 보면 영과 육으로 분리되고 기능별로 분류하면 영, 혼, 육으로 분리됩니다. 영혼이 우리들에게 문제인데요, 원래 에덴에서 영과 혼은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실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영혼의 좌소와 마음의 좌소에 대한 일들이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닌 영과 혼과 육의 분리로 만드셨습니다. 보통 영과 육으로 분리하는데 이것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적 질서를 통하여 보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사고, 즉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셨다면 영과 육으로만 지으셨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로봇이 되거나 성령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을 분리하여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

에덴동산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의 자유는 동산 안에서 내가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제약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제약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자유이며, 일본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커뮤니티의 삶에서 다양하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매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창 1장 27~28절에 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은 자식을 낳는 것이고 번성도 마찬가지고 뭔가 flourish의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내용입니다.

영화 <아바타 1, 2>에 보면 판도라라는 행성의 모든 것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 성경적인 메시지를 품은 내용입니다. 물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실제 에덴동산의 모든 내용은 성령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움직이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6~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All things are standing in Jesus Christ,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서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덴동산에 있었던 이 전형적인 내용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법리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법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내가 그 분의 몸이 되어 사는 법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에덴동산의 일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일들이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입니다.

원래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에덴동산이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11의 말씀처럼 ‘영광의 힘’의 메시지가 에덴동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동력이 된 에덴동산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변화산상에서 그리스의 몸을 통하여 나오는 영광의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르쳐주십니다. 그 일은 3가지의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다음 내용이 추가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동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연구한 결과, 일본은 실상 제자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세우시기 위해 전국시대부터 그 일을 강조해왔고 이지메의 문제와 와의 문제들로 도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Do vs. Done**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모든 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공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 커뮤니티가 깨졌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형(가인)이 동생(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를 회복하고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일이 생기니, 내가 미움과 죽음과 질투의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갚아줄게’하며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1:8~9 말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연 자유를 얻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 ‘영어’로 살펴봅시다.

새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옛언약의 백성은 내가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들 가운데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밥을 먹고, 운동하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내가 ‘do’, 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do’, 즉 ‘해야 하는 상태’라는 의미를 띄기도 하고 ‘done’, 즉 ‘되어진 상태’라는 의미를 띄기도 합니다. 이때 ‘do’는 현실 세계의 관점이고, ‘done’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일본인들로 설명하면, 이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내용은 ‘do’이고,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내용은 ‘done’입니다. 이 ‘do’와 ‘done’ 사이의 간극이 일본인들을 늘 어렵고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선교를 할 때 ‘do’와 ‘done’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done’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이 일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새언약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원래 교회에서 하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단어에 정관사 ‘the’가 붙어있는데 구분해서 교회에서 성찬의 예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그마한 전병이나 떡이 아니라 실제 큰 떡을 떼어 우걱우걱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져서 완전히 내 몸의 하나가 되는 것이 실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앞서 에덴동산에서의 자유를 살펴본 것과 같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질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저촉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매여있으면 그 매여있는 일로 인하여 그 일이 내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언약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아는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엄청나게 잘하리라’는 마음에 매여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에 매이지 않으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이 내용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풀어서 던진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흐르는 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본의 정원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나고야에 있는 도쿠가야 이에야스의 정원만 봐도 연못을 파고 없던 동산도 만드는 게 일본식 정원입니다. 반면 서울에 있는 비원은 어떻습니까. 자연 속에 길을 내고 작은 연못에 팔각정을 만들어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인 일본 정원과 한국 정원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해내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인위적으로 돌을 깎아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래로 인위적 내용이 들어왔고 인간 중심의 인위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주신 ‘혼’의 영역으로 오히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려는 사고가 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규약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중심, 자기의를 강화합니다.

**욥기를 통해 보는 새언약의 백성됨**

새언약의 백성됨과 영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욥기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아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욥기의 구성을 보면, 1장에는 욥의 소개와 함께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있고, 2장에서는 욥의 탄식이,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37장까지 이야기하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42장에 욥의 회개의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자기의의 수준이 거의 최고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이상 좌시하실 수 없으셨고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위해 원수마귀에게 빌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실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갑론을박에 대한 내용을 수사로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욥기 말씀은 무궁하고 놀랍습니다.

욥기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지 경험이나 지혜로 하시지 않는다, 인간의 철학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 철학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로 대변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며 반박합니다. 사실 욥과 그 친구들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지식의 모든 것들은 혼의 영역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엘리후를 통한 설교 내용이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메시지가 욥기 38장부터 나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파도의 경계를 아느냐, 양이 새끼를 낳는 것을 아느냐, 삼태성의 비밀, 하늘의 별들의 비밀이나 운행에 대해 아느냐, 너희가 아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내가 리워야단(공룡)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대체 너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맨날 눈으로 봤습니다. 밤하늘의 삼태성을 봤고, 파도치는 것을 봤을 것이고 양이 새끼낳는 것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안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하십니다. 만물 속에 오가는 사물의 모든 이치와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서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그런가보다 하고 그저 짐작했던 것 뿐입니다. 실제 우리는 물리적인 현상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이 지극히 짧은 것에 대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기 42장 5절).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는 이 신앙고백이 바로 새언약의 백성됨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에서 오가는 삼태성을 바라보고, 만물의 운행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매치 메이킹의 가장 마지막 수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All things are standing in Jesus Christ’, 즉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운행하는 세상의 내용들을 보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봅니다, 모두 다 느껴지고 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가 안됩니다. 그것을 누리고 깨닫고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욥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하십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에게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마친 뒤 욥은 처음 누렸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렸고 장수하다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새언약의 백성으로, 인생이 하나님 은혜와 뜻대로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욥의 세 친구들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아버지의 관심사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에타상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첫 번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법적 정의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를 보니 그를 정말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면 나머지 실제로 오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내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언약의 백성입니다.

새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서 제자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거꾸로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당 부분 한국보다 심하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이성과 내용이 앞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 이성이나 일종의 깨달음은 넥스트 스텝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일본 교회 설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논리적 이성이나 지식적 깨달음이 지배적입니다.

관조를 하면서 생각하는 사유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과 현세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매우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이 일본의 회중들입니다. 이 회중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니 자꾸만 설교 내용이 논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현학적, 철학적이고 그러니 당연히 말씀의 능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오히려 성도들을 더욱 더 옭아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영어라는 툴을 통해 누리는 새언약의 백성됨**

새언약의 백성됨이라는 것은 일단 매임이 없습니다. 죽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만일 칼로 찔리면 아프겠지만 근본적으로 죽음 자체에 대한 고통이나 아픔이 순교자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지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연 지금 일본에 부흥이 있을 수 있는가? 둘째, 그 일이 영어라는 툴로 오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점입니다.

먼저 영어라는 툴로 오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영어를 잘할거야’하면 벌써 부담감이 생기고 영어에 매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멱살이 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율법에 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지 못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신앙 경륜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선교지도 한 번씩 가면 마치 A급 신자인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렇듯 주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써있지만 그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A급 신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이 특심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Basic life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A급 신자는 새언약의 백성입니다.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새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세례를 베푸시고 인격을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것이 새언약의 백성됨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인이 스스로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졌어요”. 아주 분명한 복음의 유비상황입니다. 새언약의 백성됨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민족성을 일본인은 이미 몸에 피가 흐르듯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좋은나무교회의 C캠프를 예로 들면, 공부는 성령하나님의 스타일과 내용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하나님께서 학습하시는 스타일과 내용에 맞춰서 우리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알려주시는대로 ‘통영어’, ‘통수학’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영어라는 관점으로 살펴봅시다. 만일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도 한다면 공부한 만큼 효율이 1 정도 생깁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주어지는 학업의 효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하나님의 권능으로 공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든 만물의 일들은 하나님아버지께서 움직이시는 세상의 법리과 똑같습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아느냐’하신 말씀을 되짚어봅시다. 이것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면서 2의 몇 승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포분열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눈을 만들려면 눈과 관련된 DNA에서 정보를 떼낸 RNA를 다시 공장에서 만드는데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모든 순서들이 DNA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정란으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세포분열을 거쳐 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한 일들이 우리 안에 엄청난 비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연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 편승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됨의 40 말씀훈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편승한다는 내용은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기 42장 5절)라는 신앙고백입니다. 예전에 귀로만 듣던 방식,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그 언약이 내 안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새언약의 법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문제도 실제 새언약의 법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자유가 임해야 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매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삶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새언약의 백성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화내거나 싸우면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새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물 속에서 내가 만물의 한 기어가 되어 맞물려서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를 몸 삼아 만물을 지도하는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을 조금 했다, 많이 했다’ 하면서 자고해지는데 그때마다 욥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놔두면 범죄하겠다 싶어 엘리후를 보내셔서 ‘욥, 네가 의롭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며 정신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제사로 얘기해봅시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표적인 일인데,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제사에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제단, 그리고 그 위에 올릴 제물이 있다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철저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물은 희생제물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단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석으로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 운행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로 붉은 암송아지 재에 뿌리면 부정한 것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인간이 인공적으로 판 우물에서 뜬 물로 하면 벌써 율법적인 의와 내용이 만물에도 깃들어져 있어서 이 물로 뿌린 것은 무효가 됩니다.

대제사장, 제단,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욥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는 내용의 핵심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양이 새끼를 낳는 것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지 나는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났다거나 뭔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키즈캠프 & F2F 미션]**

**키즈캠프, 영어를 통해 자유를 배우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하는 것은 그냥 즐겁게 놀러와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벌써 매이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좋은나무교회 아이들이 키즈캠프에 올 때 영어를 배운다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력이 금방 늡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면서 말하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키즈캠프 아이들이 “영어공부하느라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는 가운데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놀면서 지내는데 영어공부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와서 노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신나고 재미있게 영어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알아듣고 젖어들고 익혀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놀러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새언약의 백성됨의 기본 전제조건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영어를 배우는 일들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운다면, 이 자유의 일들이 아이들을 넥스트 스텝으로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신앙에 관한 문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Jack Kids Camp를 했을 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섯 가정이 와서 걱정을 했지만 그 가정들 모두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분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기를 좇아서 성경말씀을 나누자고 하면 이분들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안식은 에덴동산에만 있었습니다. 그 에덴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하십니다. 여기서 꼭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그 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100%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분을 따른다는 의식과 내용을 가지고 ‘주님,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주시옵소서’하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율법적인 의도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실제 욥처럼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잔치가 끝날 때마다 아들들을 불러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욥기 1장 5절) 즉,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서 자신을 그렇게도 정죄했던, 아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어라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라는 툴(tool)로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데 ‘김치 만들기’식의 기존의 일본 선교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컨셉과 내용으로 출발해야 커뮤니티 덴도가 가능합니다.

**F2F(Family to Family) Mission**

지금까지는 선교사 한 명이 타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이양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화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교사 한 명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가정과 일본 가정들이 Family to Family로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헌신하신 F2F 미셔너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나무교회에 이미 보여주신 그 큰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고 사도바울이 그 곳을 떠나기 전 밀레도 바닷가에서 장로들에게 전한 말을 보면 달려갈 길과 사명에 대해 나눈 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굉장히 복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영어라는 역량만 가지고도 약간의 시간과 여유만 있다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영어라는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귀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F2F 미션이 시작이 되면 영어로 주중에 한번 만나서 놀고, 그 분들이 지교회에서 토요일마다 키즈캠프를 하고, 1년에 한번 JACK Kids Camp를 합니다. 내년에는 1월 16일에 2차 JACK Kids Camp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F2F Missionary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F2F Missionary가 해야 할 일**

미국 가정이 일본 가정이 일주일에 30~40분 정도 함께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적 소재가 되는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 등의 자료를 가지고 일본 가정과 만나서 함께 놀면 됩니다.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적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어를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와서 놀아야 합니다.

일본 아이들은 발음이 히라가나가 380개 밖에 발음이 안되기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일본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본 아이들과 의한마디 두마디가 복음을 전하는 폭발적인 역사가 됩니다.

다만 이 일을 하려면 서두르면 안됩니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찌코상이 F2F 미션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게 되는데, 만약 엄마와 아이가 놀이터에서 영어로 자연스럽고 놀고 얘기하고 있다면, 일본인 엄마가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일본인들은 ‘공기를 읽는다’는 말이 있는데 분위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아기와 비슷한 아이가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 가정이 매주 30분 정도하는 이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영어를 가지고 아이들과 즐겁게 떠들고 나눌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일본인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일본 아이들과 놀아주면 됩니다.

거기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작은 선물을 보낸다거나 일본 여행을 가서 만난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일본인들이 미국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F2F로 한 가정씩 매칭하다가 다른 가정이 전도되고 그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키즈캠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놀러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문화와 엄마-아이들의 커뮤니티가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일본인들에게 복음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온'이라는 일본 정서가 있는데 은혜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은 미국의 ‘Grace’와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일본인의 ‘온’ 의식 속에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패밀리 미셔너리로부터 호의를 받고 영어를 배웠다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점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개한 교회에서 6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 후(천천히) 성경공부하자고 제안한다면 대부분 받아들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됩니다. 커뮤니티 속에서 지내다보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영어로 놀아주면 됩니다. 이 일이 일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되는 엄마와 아이들이라는 커뮤니티 전도를 통해 F2F Missionary분들에게는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굉장히 잘 성장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시는 분들과 가정과 교회에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은혜가 받는 분들에게 흘러 갑니다. 복음의 흐름입니다.

**키즈캠프와 F2F 미션을 통해 누리는 은혜**

일본인들과의 성경공부는 보다 깊은 '온'에 대한 문화적 메세지와 더불어 민족의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에 대하여는 앞서 '자유' 부분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안식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만이 일본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온'의 정서를 따라서 일본인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F2F Mission을 통해서 '온'의 관계를 열고, 일본 현지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며, 일본인들의 근본적인 매임인 두려움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힐 때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데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만물 가운데 편승하는 일들이 필요하며,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합니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뢰하는 일들이 평생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교회에서 앞서가는 선배들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깎고 닦고 가르치시고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Jack Kids Camp를 하고 F2F 미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툴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그마한 일들로 하나님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일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영어라는 이 일이 단순히 일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교회에 오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 그 기저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열심히만 하면 열매는 있습니다. 그것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개념의 일들로 영어를 통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정말 큰 복을 주고 싶으신데 욥이 그 속에 안주해서 살면서 더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두고두고 보시다가 그 인생의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서 없애버리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카오스 상태에서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변하지 않는 욥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셔서 완전히 기초를 흔들어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다시 시작해야 옳으나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욥처럼 절대진리를 깨달아 싹 지워버리시는 작업을 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마음을 주시고 그 분을 믿기만 하면 새마음에 질서를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 조그마한 영어라는 일 하나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저자들의 고백은 대부분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5:11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다듬지 않은 돌들로 쌓은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 말씀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새끼낳는 것을 보고 알아라,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알아라,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는 것을 보고 알아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는 다시 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축복과 비밀은 실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 성경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알아 나의 이지를 완전히 항복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라는 조그마한 툴로 시작하는 F2F 미션을 통해 하나님아버지께서 반드시 일본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F2F 미셔너리의 헌신으로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일본과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